

開化期の 歴史・傳記文學(1)

—張志淵의 「애국부인전」을 중심으로—

姜 玲 珠*

1. 서 론

개화기의 역사·전기문학은 신문학사 연구의 초창기에 있어서는 대체로 신소설과 함께 개화기 소설의 2대 양식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왔다. 安自山은 그의 “朝鮮文學史”에서 1900년대의 소설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申采浩의 “역사소설”과 李人植의 신소설을 나란히 들고 있으며,¹⁾ 金台俊도 그의 “朝鮮小說史”에서 “계몽운동시대”의 소설의 선구로서 신채호의 “역사소설”과 이인직의 신소설을 들고 있다.²⁾ 林和 역시 그의 “新文學史”에서 “과도기 소설”을 “정치소설”과 신소설의 두 양식으로 구분하고, 그 중 정치소설이라는 범주에 역사·전기류를 포함시켜 중요시하고 있다.³⁾

이와 같은 초창기의 주목에 반하여 1950, 60년대의 국문학계에서는 개화기의 역사·전기문학이 거의 무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全光鏞교수는 “실지에 있어 이같은 역사서나 전기물들은 번역 또는 번안된 정치소설류와 더불어 혼류되어 개화기 젊은이들의 신지식 개발에 중요한 영양소의 구실을 하였던 것”⁴⁾이라고 하여, 이 시기의 역

* 同門, 상명여대

1) 安自山, 朝鮮文學史 (韓一書店, 1922), pp. 124-125.

2) 金台俊, 朝鮮小說史 (學藝社, 1939), pp. 240-241.

3) 林和, “概說 新文學史,” 朝鮮日報, 1939. 11. 3.

4) 全光鏞, “韓國小說發達史 下,” 韓國文化史大系 V,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1), p. 1209.

사류뿐 아니라 전기류까지도 개화기 서사문학의 한 범주로서가 아니라 서구적인 지식을 전달해주는 기능의 측면에서만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되는데, 하나는 이들 역사·전기류 중의 대다수가 외국 서적의 번역 내지 번안이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이들이 대체로 서구적인 현대문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협의의 문학, 즉 “순문학”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개화기의 전기류를 敎述장르에 포함시키고 있는 趙東一교수의 견해⁵⁾는 개화기문학의 실상에 맞는 광의의 문학의 범주를 인정하기는 하나, 그 중 敎事文學은 협의의 문학에만 국한된다고 보아⁶⁾ 개화기 역사·전기류를 서사문학의 일환으로서 논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비해 1970년대 이래의 개화기 역사·전기류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수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기류는 李在銑교수의 일련의 논문에 의해 “순용의 문학”에 속하는 신소설에 비해 그 탁월한 역사의식과 저항의식이라는 면에서 높이 평가받게 되었으며, 더우기 새로운 지식의 전달을 위한 역사교과서 내지 교술 장르로서가 아니라 서사문학의 일환으로서 주목되었다.⁷⁾ 이에 따라 개화기 역사·전기류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본격적인 고찰의 대상이 되었다.⁸⁾ 그러나 이 시기에 와서는 개화기 전기류에 대해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풍조가 오히려 깊이

-
- 5) 趙東一, “開化期文學의 概念과 特性,” 국문학 연구의 방향과 과제 (새문사, 1983), p. 263.
- 6) 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產業社, 1977), pp. 101-102.
- 7) 李在銑, “開化期の 憂國小說,” 開化期の 憂國文學, 閔丙秀·趙東一·李在銑 共著 (新丘文化社 1974)
- 李在銑, “開化期 敎事文學의 두 類型,” 국어국문학 68·69 합명호 (1975.9).
- 李在銑, “실리와 開化期の 抵抗의 歷史 傳記文學,” 韓獨比較文學研究 I, 李裕榮·金澤東·李在銑 共著(三英社, 1976).
- 李在銑, 한국현대소설사 (弘盛社, 1979).
- 8) 金重河, “[의티리국 아마치전] 研究,” 韓國文學論集 제 1집 (부산대학교, 1978). 柳揚善, 開化期 敎事文學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9).
- 崔元植, “아시아의 連帶—「越南亡國史」小考,” 韓國文學의 現段階 I, (創作과 批評社, 1983)

있는 연구에 장애가 되어 온 듯하다. 즉, 이들의 사상적 입장이 일률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거의 신성시되어 온 나머지, 연구자들은 이들 대상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까지는 나아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화기 전기류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평가를 위해서는 이 시기의 전기류가 일반적으로 신소설에 비해 저항의식이 강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 내에서 帝國主義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편차를 발견하고 구분해 내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예컨대 같은 번역 또는 번안 전기류라 할지라도 富國強兵策으로 근대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여 후일의 제국주의화를 기능케 했던 비스마르크·나폴레옹·피터 대제 등의 국가적 영웅에 대한 전기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 조국을 수호하거나 건설하는데 기여했던 잔다크·빌헬름 텔·마찌나 등의 애국지사에게 대한 전기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며, 더우기 異民族의 침입을 막아냈던 韓民族의 역사적 영웅에 대한 전기들은 이들 번역, 번안류와는 현저히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제 2장에서 개화기 전기류를 내용상 몇가지 계열로 구분하여 개괄하고, 제 3장에서 장지연의 “애국부인전”을 중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물론 이 작품은 창작이 아닌 翻案이라 추정되는 만큼 국문학연구의 일환으로서 본격적인 고찰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류의 작품들이 당시의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번역 또는 번안 소개되었으며, 그 역자들이 흔히 애국계몽기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들이 어떠한 서적을 선택했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우연에 의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우기 이 시기의 번역류는 원전에 충실하지 않은 이른바 “豪傑譯”으로서 원전의 縮譯이거나 誤譯이 많은 경우는 물론, 원전에 없는 귀절을 대담하게 삽입하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번역·번안 전기류들

통해서도 그들의 사상을 가늠하는 것은 물론, 전기류의 문학작품으로서의 형식의 문제에 대한 고찰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 본다.

전기류의 양식 및 형식의 문제도 지금까지는 “애국부인전” 등에 대한 극히 지엽적인 분석을 제외하고는 거의 논의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조시대의 서사문학 장르, 예컨대 國文小說・野談系 漢文小說・傳 등의 양식이 어떻게 외래적인 요소들과 함께 작용하여 개화기 전기문학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어떻게 1930년대의 역사소설로 계승・발전되게 되었는가 하는 각도에서 볼 때 이들 전기문학은 그 형식상의 면에서도 엄밀하게 분류・고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특히 병자호란 이후의 軍談小說과 한문 야담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이는 장지연의 “애국부인전” 등과, 창작 전기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傳 양식에 속하는 전기들은 개화기 전기류의 2대 양식으로서, 나아가서는 후대의 역사소설을 가능케한 2대 원천으로서 중시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와 같은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당시의 번역・번안 전기류의 주요 통로였던 일본문학과 중국문학, 나아가서는 서구문학과와의 비교문학적 검토가 불가피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고의 주요 관심은 조선조시대의 서사문학과 개화기 전기류, 그리고 후대의 역사소설을 잇는 전통내적인 문제를 밝히려는 데에 있으므로, 외래문학과와의 영향관계는 부차적인 문제로만 다루게 됨을 밝혀둔다.

2. 개화기 전기류의 諸類型

개화기의 전기류는 대체로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부터 1910년 한일합방 사이의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서 번역 또는 창작된 것들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애국계몽운동은 의병운동과 함께 이 시기 항일운동의 2대 조류의 하나로서, 의병운동이 낡은 형의 지식층의 衛正斥邪思想에

그 근원을 둔 것임에 반해 애국계몽운동은 새로운 형의 지식층의 開化思想에 의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형의 지식층, 즉 개화사상가들도 처음부터 신교육을 통해 새로운 학문의 세계와 접하게 된 지식인과 전통적인 교육방식에 의해 漢學을 수학하면서 점차 새로운 지식과 사상에 접하게 된 지식인의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식인들의 교육과정의 차이는 일본어 대 중국어 내지 한문이라는 어학적 교양의 차이를 낳게 되었으며, 번역·번안 전기류에서는 그 영향의 源泉 내지 轉身者가 일본이나 중국이나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전기류의 경우 서구의 고유명사의 표기에서 뚜렷이 드러나거나,⁹⁾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차이가 전기의 대상의 선택과 그 대상에 대해 서술하고 평가하는 태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데에 적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화기 역사·전기류의 많은 부분이 일본 정치소설의 영향을 받은 점은 알려진 바와 같으며, 한학 출신 개화사상가들의 역사·전기류의 중요한 영향원이었던 梁啓超의 저작이 일본 정치소설의 영향을 받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柳田泉에 의하면 일본의 정치소설은 국회 개회를 분수령으로 하여 1880년대인 전기와 1890년대인 후기로 2분되며, 전자가 自由民權運動의 일환으로서의 정치소설의 시기였다면 후자는 국회 개회에 의해 획득한 민권을 전제로 한 國權伸張小説의 시기로 규정된다.¹⁰⁾ 이에 따라 일본을 통해 한국에 번역 소개된 전기류 중에는 민권소설기의 전기류와 국권소설기의 전기류의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전체를 통해 볼 때 전자에 속하는 전기류는 매우 드물어서 그 예로서는 “라란부인전”을 들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한다.

9) 申采浩, “書籍界 一評,” 丹齋 申采浩 全集 別集, 改訂版 (盤雲出版社, 1982), p. 173.

10) 柳田泉, 政治小説研究 上 (春秋社, 1967), p. 36.

이는 그레이스 원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1886년 일본의 春廼屋麗(坪内雄藏)이 역술한 “郎蘭夫人傳”을 대본으로 1902년 양계초가 漢譯을 했으며, 1908년에 출간된 국역본은 양계초의 한역본을 대본으로 했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한 경로를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¹¹⁾ 프랑스 혁명 때 온건파의 중심인물로 활약하다가 공포정치하에서 처형당한 퐁랑 부인의 일대기로 서, 일본에서는 한때 “交際之女王”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기도 했던 만큼 “歐化主義의 유행과 함께 여자가 사교계에 진출해 온 사실을 반영”하는 데에 주로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²⁾

이에 비해 양계초의 한역본은 일역본의 抄譯으로서 그 내용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자유를 위해 투쟁하다 죽은 퐁랑부인을 프랑스 혁명의 어머니로서, 나아가서는 19세기 유럽 문명의 어머니로서 예찬하고 있는 그의 서문이 실려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말미의 논평에서는 정치적으로 봉건 군주제를 고수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프랑스 혁명의 전철을 밝게 될 것을 경고함으로써 그의 소신이었던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청말 變法運動에 실패하고 일본에 망명해 있던 입헌주의자 양계초가 어떠한 각도에서 퐁랑부인의 전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가 드러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그는 여러 각도에서 프랑스 혁명을 1660년의 영국혁명과 비교하면서 “법국은 혁명할 후에 더욱 두려운 시대가 되어 피혼적이 장구히 그 나라 스리틀 물드려 연빅년 후에 뜻는 자도 오히려 두리가 썰리며 코가 시게 하니 잊지하야 이리흔고 영국 사툼은 능히 스스로 다스리되 법국 사툼은 능히 하지 못함이라”¹³⁾고 그 차이점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프랑스 혁명에 있어서의 자코뱅당의 집권을 혁명의 일환으로서

11) 金秉喆,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乙酉文化社, 1975), pp. 231-234.

12) 柳田泉, 明治初期翻譯文學の研究(春秋社, 1961), p. 74.

13) 역자 미상, 라란부인전(대한매일신보사, 1907), p. 34.

가 아니라 반혁명적인 조류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중국 혁명과정에 있어서의 입헌파와 혁명파의 대립에 직면하고 있던 양계초는 프랑스 혁명에 있어서의 온건파와 강경파의 대립을 뚜렷이 전제하고 그 중 온건파를 량부인의 입장만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역본은 한역본의 원문을 비교적 충실하게 번역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계초의 서문과 말미의 논평을 그대로 번역하여 실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민권운동으로서의 프랑스 혁명과 온건파 지도자로서의 량부인을 부각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역자가 프랑스 혁명에 있어서의 노선상의 대립을 양계초와 마찬가지로 뚜렷이 의식하고 그에 대한 자기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뿐만 아니라 “번역한 자 줄오더”로 시작되는 말미의 논평에서는 “나라히 흥하여야 제 몸도 스스로 영화롭고 나라히 망하고서는 제 몸도 따라 욱되나니 임군이 망하고 나라히 멸하느니 니르러는 그 몸이 쏘흔 엇지 씨홀노 보존하리오”¹⁴⁾라는 결론을 끌어내고 있다. 즉 국역자는 국왕을 처형할만큼 격렬했던 자유민권운동으로서의 프랑스혁명의 이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조차 의심스러운 만큼 이를 차치하고 애국의 이념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발간한 대한매일신보사의 광고에도 “이 소설은 순 국문으로 매우 재미있게 만들어 일반국민의 애국사상을 배양하는 책이오니 애국하는 有志한 남자와 부인은 많이들 사서 보시오”¹⁵⁾라고 하여, 그 민권의 이념은 뒤로 하고 애국의 이념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또한 “애국부인전”과 함께 개화기 전기류로서는 매우 드물게 국문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점은 물론 여성독자를 의식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라란부인전”의 번역 의도는 그보다 조금 앞서 발간

14) 위의 책, p. 40.

15) 大韓每日申報, 1907. 9. 4. 본고에서는 작품을 제외한 모든 문헌은 현대어 국문표기로 고쳐 인용하였다.

된 “애국부인전”의 인기에 힘입어, 여성을 포함한 보다 많은 독자를 대상으로 여성으로서 애국운동에 헌신한 하나의 전범을 보여주하고자 한 것이며, 이에 비하여 그 민권운동적인 측면은 부차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하겠다.

이와는 달리 일본을 통해 소개된 전기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의 국권신장기의 정치소설이다. 그 중 피터 대제·나폴레옹·비스마르크 등은 이 시기의 전기류가 가장 즐겨 다룬 인물들로서, 피터대제에 대한 것으로 “彼得大帝傳”(趙鍾觀 역, 共修學報, 1908.5), “彼得大帝傳”(玩市生, 大韓學會月報, 1908.5), “彼得大帝傳”(金演昶 역, 申采浩 교열, 광학서포, 1908), 나폴레옹에 대한 것으로 “拿破崙傳(나보레언)”(漢城新報, 1895.11.11~1896.1.26), “拿破崙史”(박문서관, 1908), “拿破崙戰史”(劉文相 역, 義道社, 1908), “나폴레옹大帝傳”(公六, 少年, 1908), 비스마르크에 대한 것으로 “비스마르크清話”(朝陽報 1906.7), “비스마르크(比欺麥)傳”(朴容喜, 太極學報, 1906.12~1907.5), “俾士麥傳”(玩市生, 洛東親睦會學報, 1907), “比欺麥傳”(黃潤德 역, 普成館, 1907) 등이 있다.¹⁶⁾

이들 주인공은 비교적 후진국에 속했거나 혼란기에 처해 있던 나라에서 태어나 부국강병책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하여 자기 그 조국을 당대 유럽 최대의 강국으로 끌어올린 강력한 지도자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계열의 전기류의 번역이 이토록 성행했던 것은 애국제몽기의 개화사상가들의 당면 목표가 부국강병의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이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점은 “夢見諸葛亮”序에서 신채호가 “20세기 대한의 땅에서 살면서 독일의 혁명과 미

16) 金秉喆 교수는 세 편의 「彼得大帝傳」과 「拿破崙戰史」, 그리고 「比斯麥傳」의 원료로서 각각 다음과 같은 일본서적들을 들고 있다.
佐藤信安, 彼得大帝, 世界歷史譚 第12編 (博文館, 1900).
野野村金五郎, 拿破崙戰史, 萬國戰史 第3編 (博文書館, 1894).
笹川深, 비스마르크, 世界歷史譚 第4編 (博文館, 1899).

국의 독립을 꿈꾸지 않고 중국 삼국시대를 꿈꾸며, 런던같은 도시와 베를린같은 장려함을 꿈꾸지 않고 남양의 초가집을 꿈꾸며, 나폴레옹, 위싱턴……비스마르크를 꿈꾸지 않고 계갈공명을 꿈꾸고 있다. 아 슬프다. 화살과 돌이 탄환을 당할 수 있겠는가.”¹⁷⁾라고 하여 낡은 사상을 가진 儒者들을 통박하고 근대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예컨대 비스마르크전의 번역 의도에 대해, “비스마르크와 같은 인물이 이끄는 굳건한 국가의 기반을 세워 국권과 민권을 회복해보겠다는 시대적 요구의 발로”라 보아¹⁸⁾ 무조건 높이 평가하는 견해는 사태를 지나치게 단순히 해석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비스마르크가 통일하고 발전시켰던 프러시아 제국은 특히 뒤늦게 근대화하여 제국주의 대열에 들어서려던 당시의 일본이 가장 열망하고 典範으로 삼던 국가 형태이며, 더우기 “鐵血宰相”으로 알려져 있던 비스마르크가 의회의 세력을 누르고 군국주의 국가를 지향했던 것은 국권운동시대의 일본에게 가장 바람직한 선례요 모범이 되고 있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비스마르크의 膨脹主義가 합리화되고 예찬되는 전기류에서는 그에 의해 침략을 당한 덴마크·프랑스·오스트리아 등의 입장은 안타고니스트의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당시의 대한매일신보의 한 사설에서는 “근세의 프러시아는 군신 상하가 국민 교육에 힘을 오로지한지 60년에 능히 프랑스에 雪恥할 수 있었다. 이는 모두 굳게 참고 오래 견디는 의지로 그 실력을 길러서 시기를 기다려 움직한 것이다.”¹⁹⁾라고 하여, 당시 유럽의 후진국으로서 뒤늦게 근대화하여 강국으로 부상한 프러시아를 교훈으로 삼을 것을 역설할 뿐 아니

17) 申采浩, “序,” 夢見諸葛亮, 劉元杓 著 (廣學書館, 1908), p. 1.

18) 李裕榮, “獨逸文學의 移入,” 韓獨文學比較研究 I, 앞의 책, p. 67.

19) “義兵,” 大韓每日申報, 1906. 5. 30.

라 스스로를 그와 동일시하고자 함을 볼 수 있다.

이 점을 통해 볼 때 이 계열의 전기류의 국역자나 독자들은 일본의 보호조약하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침략당하는 약소국의 위치에 놓아 침략국에 대해 비판하는 각도에서 보려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들 전기류가 지닌 군국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편향에 대한 인식과 비판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점에서는 나폴레옹이나 피터대제에 대한 전기들의 경우도 그 일대기의 서술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대체로 유사한 예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결국 “구씨의 목적은 공부를 힘써하여 귀국후 뒤에 우리나라를 독일국갓치 연방도를 삼으되 일본과 문류를 혼더함하여 문명한 중국을 만들고자 하는 비서막갓한 마음이오”²⁰⁾라는 일견 진취적인 그러나 당시의 역사적 문맥에서 볼 때 기실 순응적인 “血의 淚”의 발상과 그다지 멀지 않은 것으로서, 지금까지 신소설과는 판이하게 뛰어난 역사의식을 지닌 것으로만 알려져 온 역사·전기류 중 이 계열에 속하는 전기류가 지닌 이념상의 한계로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거나 조국을 재건하는데 기여했던 민간 영웅들에 대한 전기는 일본에 있어서의 국권소설의 계열에 속하는 것이면서도 저항적인 국권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자와는 뚜렷한 차이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의티리국 아마치전”(大韓每日申報, 1905. 11. 14~21), “匈牙利 愛國者 噶蘇士傳”(朝陽報, 1906. 11), “이국부인전”(장지연 작, 광학서포, 1907), “瑞士 建國誌”(朴殷植 譯, 大韓每日申報社, 1907), “伊太利建國 三傑傳”(申采浩 譯, 廣學書館, 1908) 등을 들 수 있다. 이 계열의 전기류의 주요 번역자는 대표적인 애국계몽사상가였던 申采浩·朴殷植·張志淵 등으로서, 그 영향의 원천이 대체로 중국 서적이거나, 또는 일본 서적이라 하

20) 李人植, 혈의루 (광학서포, 1907), pp. 87-88.

더라도 한역본을 매개로 하여 번역·소개되었다는 점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계열의 전기류는 역시 저항적인 국권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면서도 이와는 다른 또 한 계열의 전기, 즉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내고 조국을 수호했던 韓民族의 역사적 영웅들에 대한 창작적 전기를 낳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 점은 창작 전기류의 내용이 그 이념상 위 계열의 전기류와 많은 일치점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작자들이 대부분 위 계열의 전기류의 번역자들이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乙支文德」(申采浩, 廣學書舖, 1908), 「姜邯贊傳」(禹基善 編輯, 玄公廉 發行, 1908), 「李舜臣傳」(申采浩, 大韓每日申報, 1908. 6. 11~10. 24), 「崔都統傳」(申采浩, 大韓每日申報, 1909. 12. 5~1910. 5. 27), 「泉蓋蘇文傳」(朴殷植, 1911년작) 등이 있다. 이상의 두 계열 중 창작 전기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미루기로 하고, 저항적 국권의식을 바탕으로 한 번역·번안 전기류에 대해서는 장지연의 “애국부인전”을 중심으로 다음 장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3. “애국부인전”의 분석

韋庵 또는 嵩陽山人 張志淵(1864~1921)은 애국계몽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요 언론인이며 사학자였다. 그는 1898년 南宮憶·柳槿 등과 함께 “大韓皇城新聞”을 인수하여 “皇城新聞”으로 改題 간행하면서 곧 주필에 취임하여 계몽적인 논설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1900년과 1902년 한국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간의 협상을 규탄한 끝에 “황성신문”의 사장이었던 남궁억이 체포되자 위암은 사장이 되었으며, 1905년 을사보호조약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위암의 사설 “是日也放聲大哭”으로 인해 황성신문은 일시 경간되고 위암은 한때 투옥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大韓興學會”와 “大韓學會” 등의 학회의 조직을 주도하여 그 학회지

를 중심으로도 활동하였으며, 1907년 항일 비밀결사인 “新民會”의 조직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위암은 역사학에도 일가를 이루어 “我韓衣冠制度考”, “朝鮮儒教觀”, “朝鮮佛教觀” 등의 특수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編年體의 역사 서술 방법을 지양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애국계몽기의 역사학을 대표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서는 후일 박은식과 신채호의 근대적인 민족사학을 위한 기반을 이루어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²¹⁾ 그러므로 1900년대의 위암의 저술활동은 역사학과 저널리즘과의 긴밀한 관련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1906년 4월부터 황성신문에 연재된 후 1907년 10월 광학서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신소설 애국부인전”도 이러한 연관 아래에서 파악되어야 하리라 본다.

“애국부인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작품이 창작이나 번역 또는 번안이나의 문제가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재선 교수는 잔느 다르크의 생애를 다룬 이 작품이 실러의 “오를레앙의 소녀”의 번안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나,²²⁾ 그 근거가 확실치 못하여 최근에는 이 작품이 위암의 창작이라는 쪽으로 견해를 수정한 듯한다.²³⁾ “애국부인전”의 원천이 실러의 “오를레앙의 소녀”라는 추단의 유일한 근거는 그 내용상의 유사성인데, 이 두 작품 사이에는 유사성 못지않게 중대한 차이점들도 눈에 띈다. 또한 이 교수가 가정한다면 “오를레앙의 소녀”가 당시 중국에서 번역이 되었던가의 여부도 확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시기 번역 또는 번안 서적의大本들이 서구문학의 거장들의 본격적인 문학작품들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자들의 조잡한 서적들인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작품을 실러의 회곡의 번안이라 보는 견해

21) 金容燮, “우리나라 近代歷史學의 成立,” 韓國의 歷史認識 下, 李佑成·姜萬吉 編 (創作과 批評社, 1976), pp. 426-427.

22) 李在銑, “開化期の 憂國小說,” 앞의 책 pp. 154-162.

李在銑, “실러와 開化期の 抵抗의 歷史傳記文學,” 앞의 책, p. 231.

23)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앞의 책, p. 184.

에는 적잖은 무리가 있다 하겠다.

또한 같은 시기에 광학서포에서 간행된 서적들은 대부분 번역자와 원저자를 구별하고 있는데 “애국부인전”은 특별히 “저작자 송양산인”으로 되어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위암이 시간적·공간적으로 너무도 상거가 있고 이질적인 잔느 다르크의 생애를 토대로 순수한 창작을 하기는 어려웠으리라는 점, 당시에 “若安貞德救國傳”이라는 작품이 별도로 존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점,²⁴⁾ “애국부인전”의 앞부분에 당시의 한국인의 작이라 보기 어려운 서구적인 삽화와 함께 프랑스어 문장이 실려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작품을 순수한 창작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본고는 일단 이 작품을 현재로서는 원본을 알 수 없는 서적의 번안이되 창작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것으로 추정하여 번역·번안 전기류의 일환으로서 다루기로 한다.

“애국부인전”은 백년전쟁 당시 프랑스의 소녀 잔느 다르크의 救國抗爭의 일대기를 서술한 것이다. 수십년간 계속된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전하여 도탄에 빠져 있는 조국 프랑스에서 女兒의 몸으로 태어난 “약안아이격”(잔느 다르크)은 신앙과 애국심에 투철하여 上帝의 계시를 받고 출정, “아리안성”, “리목성”을 탈환하여 왕의 가면의례, 즉 대관식을 행하게 한 뒤 파리성을 탈환하려고 다시 출정했다가 영군의 계략으로 포로가 되어 마침내 화형을 당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대부분의 번역·번안 전기류와 마찬가지로 그 소재 자체는 서구의 역사에서 끌어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국적인 소재는 단순한 엑조티시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려는 우리 민족을 위해 저항적 자세의 한 귀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寓意의 방법”²⁵⁾으로서 선택된 것이다. 그 점은 무엇보다도 이 작

24) “演劇界之李人植,” 大韓每日申報, 1908. 11, 李在鎭, “開化期小說觀의 形成過程과 梁啓超,” 韓國開化期小說研究(一潮閣, 1972), p. 156 에서 再引用.

25)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앞의책, p. 186.

품의 도처에 당시 프랑스의 상황을 과거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상의 위기와 비유하여 울지문덕·강감찬 등의 업적을 찬양하는 작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끼어든 점이라든가, “슬프다 우리 나라도 약은 것은 영웅 호걸과 이국 충의의 녀즈가 후 있는가”라고 묻는 이 작품의 결말에 뚜렷이 드러난다.²⁶⁾

그런데 문제는 왜 위암이 우리의 역사에서 이와 비슷한 소재를 구하지 않고 프랑스의, 그것도 시간적으로 수백년전의 사실에서 소재를 끌어왔는가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개화기에 한참 일고 있던 서구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전혀 작용하지 않은 바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위암이 사실을 허구보다 더 높이 사는 전통적인 儒家의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고 있던 작가로서 가급적이면 역사상의 사실에서 소재를 구하고자 했을 때, 우리의 역사상의 소재로서 그의 이념을 전달하기에 적합하면서도 대중적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으리라는 점이다. 이 때 마침 그가 접하게 된 잔느 다르크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평민 출신이자 여성으로서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한다는 내용으로서 그가 생각하는 주제에 가장 적합할 뿐 아니라, 보다 넓은 대중에 호소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잔느 다르크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사실에 의거하는 동양의 전통적인 傳양식으로 포착하기에는 그에게 너무도 이질적인 대상이었던 반면, 서구에서도 역사의 차원이기보다는 설화의 차원에 가까운 것으로 이를 다루는 작자에 따라 그 디테일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는 형편인 만큼, 그가 의도하던 보다 대중적인 서사양식, 즉 국문소설에 대단히 적합한 소재였을 것이다.

이 작품은 본래 “신소설 이국부인전”이라는 표제로 출간되었는데 당시의 오늘날 사용되는 의미에서의 신소설의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이었을 뿐 아니라, “애국부인전”의 형식 자체는 누가 보아도 전대의 국문소

26) 송양산인, 이국부인전 (광학서포, 1907), p. 8, p. 39.

설의 전통에 의거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표기법부터가 전기류로서는 특이해서, 대부분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졌던 개화기 역사·전기류 중 예외적으로 국문체를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애국부인전”은 대부분의 역사·전기류로부터는 소외될 수 밖에 없었던 보다 넓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인 만큼 그 독자층에 여성을 포함할 뿐 아니라 각별히 여성독자층을 의식하고 쓴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 작품은 전 10회로 이루어진 章回小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애초에 “황성신문”에 연재되었던 때문이라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이 작품이 전대의 국문소설, 더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軍談小説의 형식에 의거하여 쓰여진 작품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몇가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애국부인전”은 전대의 군담소설의 전통 위에서 있는 작품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지며, 그 중에서도 특히 임진왜란·병자호란 등의 國亂 이후에 등장했던 “박씨전” 등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군담소설들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선 교수는 영웅상의 제시라는 점에서 개화기 전기류와 이조시대의 군담소설과의 공통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조시대의 군담소설의 주인공들은 “부귀공명이나 입신양명을 성취하는 가공적인 영웅들”이라는 점에서 역사상 실재했던 구국의 영웅들인 개화기 전기류의 주인공들과 본질적인 차이를 지닌다고 하여,²⁷⁾ 이조시대의 군담소설을 허구적 군담소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시켜 논한 까닭에 개화기 전기류와 前代의 역사적 군담소설과의 영향관계를 구명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조시대의 소설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 대체로 군담이 작품전개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군담소설이라는 범주를 인정한다면, 그 중에는 “劉忠烈傳”, “張伯傳” 등 시대불명의 중국을 배

27)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앞의책, p. 191.

경으로 하여 가공적인 영웅을 등장시키는 허구적 군담소설과, “林慶業傳”, “朴氏傳” 등 실재했던 우리민족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역사적인 영웅을 등장시키는 역사적 군담소설을 명백히 구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허구적 군담소설은 이조시대의 국문소설 중 양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인공의 영웅적인 모험을 통해 개인적인 立身揚名과 부귀영화를 달성한다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서, 귀족적인 세계관을 배후에 지니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설들의 저작 동기에는 黨爭으로 인한 失勢兩班層의 집권의 꿈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²⁸⁾

이에 비해 군담소설의 저작 동기가 임진왜란·병자호란 이후의 민족의식과 시대사조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종래의 견해²⁹⁾는 역사적 군담소설의 경우에 주로 해당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허구적 군담소설에 비해 수적으로는 훨씬 적어,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壬辰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임경업전”, “박씨전” 등이 남아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역사적 군담소설은 허구적 군담소설의 귀족적 세계관과 공식적인 해피엔딩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으며, 특히 그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의 면에서 근대적인 역사소설의 원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소설사적으로 한층 더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임경업전”과 “박씨전”은 일반적으로 패배한 전쟁이었던 병자호란을 각각 임경업장군과 박씨부인의 활약에 의한 승리의 이야기로 허구화하고 있기에 병자호란 이후의 민족적 울분에서 씌어진 작품이라 추측된다.³⁰⁾ 그중 “임경업전”은 병자호란을 전후해서 활약한 실존인물이었던

28) 徐大錫, “軍談小說의 出現動因 反省,” 古典文學研究 第一輯(韓國古典文學硏究會, 1971), p. 31.

29) 金台俊, 앞의 책, pp. 98-99.

30) 장덕순 교수는 이 두 작품이 등장인물 및 대소의 사건이 일치하며, “박씨부인전”의 말미에 “이 책에 말이 맞지 못한은 일후에 임경업전에 기록하여 보게 함이라”는 등의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매편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張德順, “丙子胡亂을 前後한 戰爭小說,” 國文學通論(新丘文化社, 1969), p. 321).

임경업장군의 일생과 무용담을 기술한 소설로서, 주인공의 승리가 도술이나 요술의 도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智略과 武勇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에 따라 이민족과의 전투에서는 승리한 주인공이 간신들의 흉계에 의해 獄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조 시대 소설의 행복한 결말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박씨전”은 박씨부인이라는 異人이 병자호란 때 병조판서를 지낸 실존인물 李時白의 처로서, 남편을 도와 도술로써 淸軍을 격파하여 칭군으로 하여금 간신히 회군케 한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여주인공이 현실적인 지략이나 무용이 아닌 도술에 의해 승리를 거둔다는 점에서 “임경업전”에 비해 허구적 군담소설에 더 가까운 작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공의 異人 여주인공을 역사상 잘 알려진 인물의 부인으로 설정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역사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여주인공의 활약을 통해 우리 민족이 구체적으로 직면했던 국난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군담소설과는 명백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애국부인전”은 형식의 면에서부터 이러한 군담소설을 연상케 한다.

화설 오백여년 전에 구라파주 법란서국 아리안성 디방에 한 마을이 잇스니 일흠은 동이더라 그 싸이 궁벽하여 인가가 드물고 농사만 힘쓰는 집뿐이라 그 중에 한 농부가 잇스니 다만 부처 두 식구가 일간 초옥에 잇서 가세가 빈한함으로 양을 쳐서 성업하더니 서력 일천스백십이년 경월에 맞춘 한 쌀을 나흐니 용모가 단아하고 현성이 총명하여 영민함이 비홀터 업스니 부모가 사랑하여 일흠을 약안아이격이라 하더니 약안이 점점 자라매 부모게 효순하며 한번 가락치면 모를 것이 업스며 또한 상메를 미더 성경을 흥상 읽으며 학문에 능통한 지라 나이 십삼세에 이몰어 능히 부모뉘 양치는 성업을 도으니 부모가 이 너의 극히 령리흠을 보고 심분 깃버하더라.³¹⁾

31) 송양산인, 앞의책, p.1

이와 같이 작품의 서두에서 주인공의 출신과 그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는 수법, 각 장마다 “화설”, “차설” 또는 “각설”로 시작되어 전환을 꾀하는 장회소설의 형식, 그리고 설명 위주의 서술방식과 고담적인 문체에 있어서도 이 작품은 근본적으로 군담소설의 형식적 특질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애국부인전”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의 연대가 정확히 밝혀져 있으며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설명이 소상히 되어 있어, 뛰어난 역사적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작품에서 잔느 다르크는 도술이나 마력같은 초월적인 힘의 도움이 없이 다만 애국심과 군중의 호소력, 그리고 현실적인 지략에 의해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물론 그녀가 구국의 전선에 뛰어들 결심을 하게 되는 동기가 상제의 계시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출정에서 승전에 이르는 과정은 전적으로 현실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며, 더우기 그 결과 여주인공이 英軍의 포로가 되어 화형을 당한다는 결말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애국부인전”은 서구의 문학작품들 중에서도 잔느 다르크가 마녀로 묘사되어 있는 작품들과 좋은 대비가 되며, 이조시대의 군담소설들 중 허구적 군담소설은 물론, 여주인공이 도술에 의하여 적을 퇴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박씨전”과도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애국부인전”은 그 사건의 합리성과 역사적 감각이라는 점에서 “임경업전”에 더 가까운 작품이라 하겠는데, 더우기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임경업전”처럼 주인공의 戰績을 과장하고 허구화하여 패배로 끝난 전쟁을 실질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합리화할 필요도 없이, 역사적으로 엄연히 승리한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작자에게는 더욱 바람직한 소재가 되어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애국부인전”은 “라관부인전”과 함께 개화기 전기류 중 예외적으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주지하다시피 신소설은 대부분 여

성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으며³²⁾ 국문소설인 관제로 개화기 서사문학 중 압도적으로 상업성을 떨 수 있었던 장르로 알려져 있다. 이 점에서 “애국부인전”은 전기류 중 드물게 신소설과 경쟁이 가능했던 대중적인 작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는 비록 舊套이기는 하나 프랑스의 대원수가 된 잔느 다르크가 절세의 미인으로 묘사되어 있는 점 등 대중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적지 않은 것이다. 또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군담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은 전대의 역사적 군담소설 중 “박씨전”과도 맥이 닿는 것이라 하겠다. “박씨전”에 대해서는 당시의 군담소설의 주요 독자가 여성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병자호란을 전후해서 鄭忠信의 처, 李适의 처 등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군담이 야담으로서 적잖이 전래되고 있다는 점이다.³³⁾

그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애국부인전”의 작자인 위암의 야담집 “逸士遺事”에 수록되어 있는 夫娘의 이야기이다. 이는 平安兵使 이괄의 막하에 부친을 대신하여 입영한 부랑이 安州牧使 정충신에게 이괄의 역모를 알리고 계획을 울려 난을 진압케 하고, 승전 후 여자임이 드러나 정충신과 화축을 밝힌다는 내용이다.³⁴⁾ 이와 같은 부랑의 이야기와 잔느 다르크의 이야기는 양자가 무남독녀로서 어려서부터 여성에게 부여된 한계에 대해 반발하고 애국심과 무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점, 젊은 여성으로서 출정하되 빼어난 미모였다는 점, 지극한 효녀로서 승전후 고향에 돌아가 노부모를 봉양하겠다고 청을 올리는 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부랑은 男裝을 하고 출정하여 정충신의 배후에서 적절한 계책을 올린 데에 비해 잔느 다르크는 여자의 몸임을 몇몇이 밝히고 출정, 직접 전투를 지휘하여 승전으로 이끌

32) 趙東一, 新小説의 文學史의 性格 (韓國文化研究所, 1973), p. 84.

33) 張德順, 앞의 책, pp. 311-314.

34) 張志淵, “逸事遺事 卷之六,” 張志淵 全書 二 (禮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79), pp. 829-836.

었다는 점에서 여성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부랑이 아닌 一朵紅이라는 이름을 지닌 정충신의 처에 대한 동계의 설화가 전해지기도 하며,³⁵⁾ 개화기에 “鄭忠信”이라는 제목의 일종의 역사소설이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어,³⁶⁾ 이와같은 종류의 설화가 개화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애국부인전”은 서구적인 소재를 다룬 번안작이라 추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임·병 양란 이후의 역사적 군담소설의 전통을,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같은 시기부터 유래하는 기록된 설화, 즉 한문 야담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같은, 야담과 역사적 군담소설의 계승이라는 장르 내기인 현상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화기가 임·병양란 전후와 유사한 민족적 위기의 시대였다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양 시기에는 이민족의 침입에 대하여 조국을 수호하려는 저항적 국권의식이라는 동일한 이념이 지배하게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일종의 영웅숭배론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흔히 애국계몽기의 역사관의 한계로 지적되는 영웅사관도 이와 동계의 이념으로 이해되는데, 다른 한편 “애국부인전”의 경우는 평민이자 여성 영웅의 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전기류에 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 볼 수 있다.

조동일교수는 신소설이 이조시대의 영웅소설, 즉 허구적 군담소설의 구조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귀족적 세계관과 보수적 가치관 등을 계승한 것이라 보았다.³⁷⁾ 그렇다면 개화기 전기류의 중요한 한 가닥인 “애국부인전”은 민족적 위기를 자각하고 외세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는 역사적 군담소설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신소설과 종

35) 張德順, 앞의책, pp. 311-312.

36) 金台俊, 앞의책, p. 247.

37) 趙東一, 新小説의 文學史의 性格 (韓國文化研究所, 1973), pp. 152-154.

은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4. 결 론

본고는 개화기 전기류를 그 내용상 몇가지 계열로 구분하여 개괄하고, 그중 장지연의 “애국부인전”을 이조시대의 군담소설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개화기의 역사·전기문학은 신문학사 연구의 초창기에 있어서는 대체로 신소설과 함께 개화기 소설의 2대 양식으로 규정되었던 반면, 그 이후의 국문학계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화기 문학연구에 있어서는 고전문학에서는 물론 개화기 당시까지 엄연히 통용되고 있던 광의의 문학의 범주를 인정함으로써 역사·전기류를 포괄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전기류는 서사문학의 일환으로써 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970년대 이래 서사문학으로서의 개화기 전기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 하겠으나, 아직까지 그 연구는 극히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내용상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과 저항이라는 면에서 다양한 편차를 가려내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개화기 전기류는 직접·간접으로 일본 정치소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본 정치소설의 시대구분에 상응하여 몇가지 계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일본의 자유민권운동기의 정치소설로서 한국에 소개된 전기류는 극히 희귀하여 “라란부인전”을 들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淸의 양계초의 한역본을 매개로 소개되었으며, 그 내용도 민권의 이념을 부차시하고 애국의 이념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굴절되어 있다. 일본의 국권소설기에 해당하는 작품은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그 두번째 계열 즉 피터대제·나폴레옹·비스마르크 등 부국강병책으로 근대적인 국가 발전

을 도모하여 후일의 제국주의화를 가능케했던 국가적 영웅들에 대한 전기이다. 이 계열의 전기류의 유행은 당시 애국계몽 사상가들의 당면 목표가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이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라 하겠으나, 이러한 전기들이 제국주의를 교묘히 합리화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이 비판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세재로,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거나 조국을 재건하는 데 기여했던 잔느 다르크·빌헬름 텔·마찌니 등 민간 영웅들에 대한 전기는 일본의 국권소설기의 작품에 해당하는 것이면서도 저항적인 국권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자와 구별된다. 이는 대체로 박은식·장지연 등의 애국계몽 사상가들에 의해 중국의 서적들을 매개로 소개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계열의 전기류는 네번째 계열의 전기류, 즉 을지문덕·이순신·최영 등 외세의 침입을 막아낸 한민족의 역사적 영웅들에 대한 창작적 전기류를 낳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장지연의 “애국부인전”은 백년전쟁 때 영국의 침략으로부터 조국 프랑스를 구한 잔느 다르크의 생애를 기술한 작품으로서, 현재로서는 원작을 알 수 없으나 일종의 번안작이라 추정된다. 이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며 극문으로 씌여진 점에서 개화기 전기류 중 최귀한 예에 속한다. 그런데 이 작품은 그 내용과 형식의 양면에서 한편으로는 이조시대의 국문소설 중 “임경업전”, “박씨전” 등 역사적 군담소설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병자호란을 전후한 여성의 활약상을 그린 야담, 그 중에서도 특히 위암의 “일사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부랑의 이야기와 많은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양식의 계승은 개화기가 임·병 양란 전후와 유사한 민족적 위기의 시대였으며, 따라서 이민족의 침입에 대항하여 조국을 수호할 만한 영웅을 대망하고 숭배하는 경향이 지배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애국부인전”은 평민·여성 영웅의 상을 보여주며, 국

문으로 쓰여져 대부분의 역사·전기류로부터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보다 넓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동시대의 다른 전기류에 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컨대 “애국부인전”은 전대의 역사적 군담소설과 한문 야담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러한 전통이 후대의 역사소설로 계승·발전되는 계기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개화기 전기류 중 가장 중시되어야 할 작품의 하나라 본다.